



Kimi K3가 바꾼 중국 AI 구도, Moonshot AI 존재감 확대

Hana China Weekly | 2026.7.24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Moonshot AI(비상장): 'Kimi K3',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화두로 부상

- 7/16 신형 모델 'Kimi K3'를 정식 출시하며 글로벌 AI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총 파라미터 2.8조 개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며, 주요 벤치마크에서 GPU 커널 최적화 지표 기준 Fable 5(폴백 포함)와 동급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OpenAI GPT-5.6 Sol-GPT-5.5를 상회. Arena.ai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부문 벤치마크 1위, Vals AI 전체 순위 2위(Fable 5 다음, GPT-5.6 Sol 상회)를 기록. 가격은 백만 토큰당 약 12달러로 중국 모델 특유의 초저가보다는 엔트로픽 중간급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단순 가격 경쟁보다 성능 포지셔닝을 우선한 전략으로 주목.
- 7/21 블룸버그에 따르면 Moonshot AI가 홍콩 상장 전 마지막 자금 조달 라운드를 8월 중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목표 밸류에이션은 최대 500억달러. 현재 진행 중인 315억달러 밸류에이션 라운드는 수일 내 마무리될 예정. Moonshot AI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역외 레드칩 구조 해체를 완료해 중국 내 자금 조달 및 IPO 준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

알리바바(9988.HK): AI 에이전트 전용 서버 인스턴스 출시, 비용 절감 효과 제공

- 7/20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AI 에이전트 전용 경량 서버 인스턴스를 출시.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서버·API Key·공인IP·대역폭을 각각 따로 구매 및 설정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vCPU·메모리·클라우드 디스크·200Mbps 대역폭·LLM 토큰(1억~32억개)을 단일 선불 패키지로 통합 제공하는 일체형 AI 에이전트 운영 환경을 구현. 현재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2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향후 국내외 추가 지역으로 확대 예정.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입문형(2코어 2G+2억 토큰) 기준 AI 코딩 시나리오에서 기존 별도 구매 대비 월 18%, 콘텐츠 생성 등 고사용 시나리오에서는 월 68%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CXMT(688825.SH): 저가 발행으로 절대 수익은 제한적

- 7/23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7/27 상하이거래소 커창반에 정식 상장한다고 발표. 상장 초기 유통 가능 주식수는 45.03억주로 총 주식의 6.73%에 불과해 상장 초기 유동성 제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높을 것으로 경고. 커창반 규정상 상장 후 첫 5거래일은 가격 제한폭($\pm 20\%$) 없이 거래되며 이후 $\pm 20\%$ 제한 적용. 청약 포기 비율은 기관 투자자 기준 0.005% 미만, 개인 투자자 기준 0.17%로 극히 낮아 수요 강도가 압도적이었음을 재확인.
- CXMT 발행가가 8.66위안으로 확정된 후 온라인 상에서 "발행가가 너무 낮아 1점(500주) 배정 시 수익이 너무 적다"는 개인 투자자 반응이 확산. 더불어 당초 모집액(295억 위안)에서 2배로 확대된 579억 위안 규모의 대형 IPO가 반도체 섹터 전반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 상장 후 초기 실제 유통 주식 비율이 총 주식의 약 2.2%에 불과한 극히 좁은 구조로 단기 변동성이 극도로 높을 것이라는 경계감도 투심을 억눌렀다는 분석.

AI/테크

알리바바(9988.HK): AI 에이전트 전용 서버 인스턴스 출시, 비용 절감 효과 제공

- 7/20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AI 에이전트 전용 경량 서버 인스턴스를 출시.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서버·API Key·공인IP·대역폭을 각각 따로 구매 및 설정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vCPU·메모리·클라우드 디스크·200Mbps 대역폭·LLM 토큰(1억~32억개)을 단일 선불 패키지로 통합 제공하는 일체형 AI 에이전트 운영 환경을 구현. 현재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2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향후 국내외 추가 지역으로 확대 예정.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입문형(2코어 2G+2억 토큰) 기준 AI 코딩 시나리오에서 기존 별도 구매 대비 월 18%, 콘텐츠 생성 등 고사용 시나리오에서는 월 68%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7/15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개한 신규 모바일 생성형 AI 서비스 비안 명단에 애플의 'Apple Intelligence'가 7/8자로 등재됐음이 확인. 2024년 WWDC 첫 공개 이후 2년 만에 중국 시장 진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중국 내 파트너는 알리바바 Qwen·바이두 원신 듀얼 체제로 확정. 알리바바 Qwen이 약 65%·바이두 원신이 약 35%를 각각 담당. 알리바바는 즉각 "사용자가 앱을 전환하지 않아도 iOS·iPadOS·macOS 등에서 Qwen 기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아이폰15 Pro 시리즈 이상 기기에 우선 적용되며 정식 출시 시점은 안전 평가·현지화 적용 완료 후 결정 예정.
- 7/19 WAIC 2026에서 차세대 플래그십 AI 모델 'Qwen3.8-Max-Preview'를 예고하며 강세. 총 파라미터 2.4조 개의 MoE 아키텍처로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모델 중 하나이며 Fable 5에만 뒤처진다"고 자평하며 오픈소스화 계획을 공식 발표. 현재 알리바바 TokenPlan, Qoder, QoderWork 플랫폼에서 프리뷰 버전 접근이 가능하며 전체 가중치는 추후 오픈소스로 공개 예정.
- 7/21 EU 집행위원회가 알리바바 산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5억 5,000만유로(약 6억 2,9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며 악재로 작용.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2024년 3월 개시된 28개월간의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위조품·안전 기준 미달 장난감·위험 화장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자사의 불법 상품 탐지·제거 시스템 효율성을 과대 평가하고 콘텐츠 모더레이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핵심 위반 사항으로 지목.

Moonshot AI(비상장): 'Kimi K3',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화두로 부상

- 7/16 신형 모델 'Kimi K3'를 정식 출시하며 글로벌 AI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총 파라미터 2.8조 개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며, 주요 벤치마크에서 GPU 커널 최적화 지표 기준 Fable 5(폴백 포함)와 동급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OpenAI GPT-5.6 Sol·GPT-5.5를 상회. Arena.ai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부문 벤치마크 1위, Vals AI 전체 순위 2위(Fable 5 다음, GPT-5.6 Sol 상회)를 기록. 가격은 백만 토큰당 약 12달러로 중국 모델 특유의 초저가보다는 엔트로픽 중간급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단순 가격 경쟁보다 성능 포지셔닝을 우선한 전략으로 주목. 모델 가중치는 7/27 공개 예정.
- 7/20 Kimi K3 출시 48시간 만에 폭발적인 수요로 GPU 연산력이 한계에 도달하며 신규 구독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 "지난 48시간 동안 수요가 현재 연산력의 한계에 근접했으며 GPU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X를 통해 공식 언급하며 기존 구독자는 영향 없이 유지하되 신규 구독만 일시 중단, 연산력 확충 즉시 단계적으로 재오픈 예정. 향후 구독 플랜은 코딩 전용 플랜 포함 2개 티어로 분리 개편해 사용자 유형별 연산력을 최적화할 방침.
- 7/21 블룸버그에 따르면 Moonshot AI가 홍콩 상장 전 마지막 자금 조달 라운드를 8월 중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목표 밸류에이션은 최대 500억달러. 현재 진행 중인 315억달러 밸류에이션 라운드는 수일 내 클로징 예정이며, 완료 즉시 후속 라운드를 곧바로 개시하는 이례적인 속전속결 자금 조달 구조. Moonshot AI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역외 레드칩 구조 해체를 완료해 중국 내 자금 조달 및 IPO 준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

즈푸AI(2513.HK): 탈엔비디아 실현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완공

- 7/21 블룸버그에 따르면 즈푸AI가 엔비디아 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산 AI 칩만으로 구성된 1G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고 일부 가동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7/21 +36.9% 급등하며 최근 낙폭을 대폭 만회. 동 데이터센터는 75만 가구에 동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중국 헤드라인 AI 기업 중 완전한 '엔비디아 제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 각 클러스터당 1만개 이상의 국산 AI 칩을 탑재한 복수의 대규모 연산 클러스터를 이미 구축·운영 중이며, 해당 인프라는 차세대 GLM 프론티어 모델 학습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예정.

텐센트(0700.HK): Citi, 주가 하락에 대해 매수 기회로 평가

- 최근 실적 우려에 대해 주가가 하락한 점을 두고 Citi는 1) AI 하드웨어로의 자금 로테이션 2) 2Q26 게임 수입 둔화에 대한 시장의 공포 3)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훼손 우려 세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시장의 게임 수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모바일 추적 데이터의 오독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매수 기회로 제시. 이에 7/23 텐센트 주가는 1.0% 반등. Citi는 2Q26 국내 게임 수입을 YoY +8%, QoQ -3.9%로 전망하며, 모바일 앱 마켓 추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와 달리 실제 공시 매출은 전기 이연 수입 반영과 추적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PC 게임 호조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Citi는 매수, 목표가 758홍콩달러를 유지하며 "단기 변동성이 텐센트의 다각화된 글로벌 게임 사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

AI: JP모건, 즈푸AI, 미니맥스 목표 주가 대폭 하향

- JP모건이 즈푸AI(2513.HK), 미니맥스(0100.HK) 두 종목 모두에 대해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각각 3.6%/11.4% 하락. JP모건은 즈푸AI 목표주가를 2,400홍콩달러에서 1,600홍콩달러로, 미니맥스 목표주가를 240홍콩달러에서 160홍콩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 중국 AI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익화 속도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가운데, 즈푸AI는 7/9 랍업 해제, H주 배정 증자(314억홍콩달러) 이후 수급 부담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추가 목표가 하향 충격이 겹치며 낙폭이 확대.

중국 AI 인프라 정책: 디지털 경제 하반기 계획 발표

- 7/21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이 2026년 상반기 디지털경제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발표. 상반기 전시 디지털경제 부가가치 증가율 +7.8%·핵심 산업 +9.8%를 기록했으며 신규 AI 연산력 2.2만P를 추가해 공급 규모가 8.2만P에 도달했다고 발표. 하반기에는 1)'Token 경제 발전 정책'을 제정해 Token 생산·배포·응용 등 핵심 환절에 'Token 공장'·'Token 배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업·교육·문화관광 등 중점 분야 응용을 추진, 2)'슈퍼노드+산업노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하반기 신규 AI 연산력 5만P를 추가해 연내 총 산력 규모 13만P 돌파를 목표로 제시, 3)데이터센터 녹색화 개조를 추진해 연간 녹색전기 소비량 30억 kWh 이상을 달성할 방침. 'Token 공장'은 대형 모델 학습·추론을 위한 고효율 AI 연산력 인프라로 연산력 자원의 풀링·스케줄링 최적화를 통해 Token 생성 효율과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개념으로, 베이징이 중국 최대 AI 기업 집적지라는 점에서 AI 밸류체인 전반의 추가 수요를 직접 견인할 전망. 정책 발표 이후 7/22 클라우드 컴퓨팅/IDC 테마가 강세, 자광주식(000938.SZ), 중과서광(603019.SH), 링차오정보(000977.SZ)는 각각 8.35/4.4%/2.0% 상승 마감.

반도체/광통신

CXMT(688825.SH): 저가 발행으로 절대 수익은 제한적

- CXMT 발행가가 8.66위안으로 확정된 후 온라인 상에서 "발행가가 너무 낮아 1천(500주) 배정 시 수익이 너무 적다"는 개인 투자자 반응이 확산. 더불어 당초 모집액(295억 위안)에서 2배로 확대된 579억 위안 규모의 대형 IPO가 반도체 섹터 전반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 상장 후 초기 실제 유통 주식 비율이 총 주식의 약 2.2%에 불과한 극히 좁은 구조로 단기 변동성이 극도로 높을 것이라는 경계감도 투심을 억눌렀다는 분석.
- 7/23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7/27 상하이거래소 커창반에 정식 상장한다고 발표. 상장 초기 유통 가능 주식수는 45.03억주로 총 주식의 6.73%에 불과해 상장 초기 유동성 제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높을 것으로 경고. 커창반 규정상 상장 후 첫 5거래일은 가격 제한폭($\pm 20\%$) 없이 거래되며 이후 $\pm 20\%$ 제한 적용. 청약 포기 비율은 기관 투자자 기준 0.005% 미만, 개인 투자자 기준 0.17%로 극히 낮아 수요 강도가 압도적이었음을 재확인.

란치테크놀로지(688008.SH): AI 서버 수요 확대, 실적 증가에 긍정적

- 7/17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잠정 매출액은 약 33.4억위안(YoY +26.6%),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9억~21억위안(YoY +63.9~81.2%)으로 전망. 다만, 비경상손익 제외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2.5억~14.5억위안(YoY +14.5~32.9%)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비경상손익 제외 순이익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일회성 요인이 실적 개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 AI 서버 수요 확대와 DDR5 침투율 상승에 힘입어 DDR5 RCD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MRCD/MDR, PCIe Retimer, CKD, CXL MXC 등 신규 인터커넥트 칩 매출도 확대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7/15 한국 공정거래조사부가 반독점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란치테크놀로지 한국 사무소를 현장 수색·증거 확보. 조사 대상은 란치테크놀로지 단독이 아니라 일본 르네사스(Renesas)-미국 Rambus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 시장을 3분하는 3개사 전원으로, 한국 검찰은 3사가 DDR4/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가격 카르텔)을 조사 중. 3사의 한국 사무소 모두 동시 수색을 받았으며 직원 휴대폰 및 기업 문서가 압수됨.

무어쓰레드(688795.SH): 잠정 매출 서프라이즈 기록

- 7/16 2026년 상반기 잠정 매출액이 16.5억~17.5억 위안(YoY +135.1%~+149.4%)으로 전년 동기의 약 2.35~2.49배에 달한다는 실적을 공시. 실적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AI 산업 발전과 풀기능 GPU에 대한 강한 시장 수요, 콤팩트 스마트 컴퓨팅 클러스터의 상업화 가속, 제품 성능에 대한 고객 인정과 안정적 공급으로 설명. 플래그십 학습·추론 통합 GPU 스마트 카드 MTT S5000이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으며, 해당 제품 기반의 대규모 클러스터는 조 단위 파라미터 대형 모델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연산 효율이 동급 해외 GPU 클러스터의 선진 수준에 도달.

화웨이(비상장): 차세대 AI 연산력 인프라 공개

- 7/17 WAIC 2026 개막에 맞춰 차세대 AI 연산력 인프라 'Ascend 950 슈퍼노드(Atlas 950 SuperPoD)'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 현장 전시 버전은 16개 컴퓨팅 캐비닛에 총 1,024장의 어센드 카드를 탑재했으며, 자체 개발 '링취(UnifiedBus)' 인터커넥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최대 8,192장의 어센드 카드 고속 연결을 지원, 전 세대 어센드384 슈퍼노드 대비 카드 규모가 20배 이상으로 확대.

해광정보(688041.SH): 고성능 CPU+DCU 확장, 잠정 순이익 개선 뚜렷

- 7/16 2026년 상반기 잠정 매출 85억~93억 위안(YoY +55.6%~+70.2%), 귀속순이익 17억~18.3억 위안(YoY +41.5%~+52.3%)을 공시하며 7/20 주가 +5.0% 반등 마감. 주식보상비용 제외 시 귀속순이익은 21.7억~23억 위안(YoY +74.3%~+84.7%)으로 실질 수익성 개선 폭이 더욱 두드러짐. AI 대형 모델 빠른 반복과 AI 에이전트 응용의 규모화 상용화, 국산화가 상업용 응용으로 진전되는 다중 드라이브 하에서 고성능 CPU+DCU 제품의 시장 확장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

기가디바이스(603986.SH, 3986.HK): A주 조달 자금으로 DRAM 프로젝트 추진

- 7/21 이사회를 개최해 A주 공모 조달 자금 5억위안을 전액 출자 회사 주하이형친신존반도체에 증자해 DRAM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 증자 5억위안 중 5,000만위안은 등록자본에, 4.5억 위안은 자본잉여금에 각각 계상되며, 증자 완료 후 주하이신존의 등록자본은 1.5억위안에서 2억위안으로 증가하나 전액 출자 회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

중지쉬창(300308.SZ): H주 일정 확정, 공모가 1,010홍콩달러로 상장 예정

- 7/22 홍콩거래소 공시를 통해 H주 IPO 세부 일정을 확정. 총 5,450만주 발행(글로벌 배정 포함 그린슈 행사 전 기준), 공모가 상단 1,010홍콩달러로 확정됐으며 7/28 공모가 확정 이후 7/30 공식 상장 예정. 성사 시 모집 규모 약 70억달러(546억홍콩달러)로 2026년 홍콩 IPO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A+H 이중 상장 체제가 완성됨. A주 현재가(약 980~1,000위안) 대비 소폭 할인~동등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H주 발행이 A주 대비 통상 할인되는 관행과 달리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점에서 기관 수요가 그만큼 강했다는 의미로 해석.

이차전지

이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태양광 셀에 소비세 부과, CATL 영향은 제한적

- 7/17 중국 정부, 리튬이온 배터리·태양광 셀에 소비세 부과 발표, 이는 태양광·EV 배터리 산업의 공급과잉 완화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 9월부터 2%, 2027년 9월부터 4% 소비세 적용. 태양광 셀은 2027년 4월부터 2%, 2028년 4월부터 4%로 단계적 인상.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 등 일부 차세대 태양광 셀은 2028년 말까지 소비세 면제. 기존에는 배터리 소비세율이 4%였지만 리튬이온 배터리·태양광 셀 등은 면세 대상이었음.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나트륨이온·전고체 배터리 육성 기조 재확인.
-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은 이미 낮은 상태, 따라서 배터리 제조사가 소비세를 부담하기는 어려움. 배터리 소비세 대부분은 최종 판매가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 CATL과 같은 상위 업체에겐 금번 소비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소비세를 판매가에 전가하지 못하는 하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임.

CATL(300750.CH): 네덜란드 기업 Alfen과 5GWh 나트륨 ESS 공급 계약 체결

- 7/17 CATL과 네덜란드 에너지 인프라 기업 Alfen은 2027년부터 유럽에서 5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ESS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해당 프로젝트는 유럽 최초의 CATL 'Tener Sodium' 상용 설치 사례가 될 전망. Tener Sodium은 올해 6월 CATL에서 출시한 나트륨이온 ESS 제품. CATL은 올해 9월 중국에서 Tener Sodium 출하를 시작해 2026년 말까지 누적 출하량 1GWh를 달성하고, 2027년 6월부터 글로벌 상업 출하를 개시할 계획. Tener Sodium은 25년 설계 수명, 기존 대비 약 2%p 높은 왕복효율(RTE), 30MWh 이상 저장용량을 제공하며 1~8시간 저장시간 구성이 가능. 또한 LFP 배터리와 혼합 적용이 가능해 리튬 가격 변동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CATL은 이번 협력을 통해 유럽 전력망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지 전력망 규격에 맞춰 기술을 검증·최적화할 계획. 이는 CATL의 해외 나트륨이온 ESS 상용화 확대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CATL(300750.CH): 동유럽 기업 Solarpro와 2GWh 규모 나트륨 ESS 공급 계약 체결

- 7/21 CATL이 동유럽 재생에너지 기업 Solarpro와 2GWh 규모 나트륨 ESS(Tener Sodium) 공급 계약 체결. 양사는 2026년 중·동유럽 최초의 대규모 나트륨이온 ESS 프로젝트를 공동 구축할 계획. CATL의 이달 두 번째 유럽 나트륨 ESS 수주. 지난주에는 Alfen과 5GWh 규모 MOU를 체결한 바 있음.

CATL(300750.CH): 국투전력 자회사와 2.4G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 7/20 CATL은 국투전력(600886.SH) 자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총 334억위안을 투자하는 2.4G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발전소 가동 이후 2.664GW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산업재

양광전력(300274.CH): PCS 제품 독일 인증 획득, 유럽 시장 경쟁력 강화

- 7/20 양광전력의 SC210HX PCS가 독일의 VDE FNN 프로토타입 인증 획득. 독일 중·고압 계통 연계 기준과 Grid-forming 성능 검증을 모두 통과한 세계 최초 ESS PCS. 해당 인증으로 SC210HX PCS가 적용된 PowerTitan ESS는 계통 연계 기간 단축, 프로젝트 인허가 리스크 축소, 유럽 관성(Inertia) 시장 진입 가속 및 프로젝트 금융조달 경쟁력 강화 기대. VDE FNN은 독일 전력망 기술 및 운영 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증은 유럽 계통운영자와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적합성과 장비 신뢰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 이번 인증을 통해 유럽 에너지 전환 시장에서 Grid-forming ESS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양광전력(300274.CH): 이탈리아 BESS 프로젝트 공급 업체로 선정

- 7/21 양광전력이 이탈리아 독립발전사업자(IPP) BNZ의 240MWh 규모 BESS 프로젝트의 우선 공급업체로 선정. 이탈리아 라치오주 소재 45MW, 53MW 태양광 발전소 2곳에 BESS 공급 예정. 공급 범위는 배터리, 컨테이너, PCS, 중전압 설비, 시운전, 현장 테스트, 기술 교육, EMS 연동 등 시스템 통합 전반 포함. BNZ는 유럽에서 530MW 규모 BESS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탈리아에서만 약 1GWh 규모 BESS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 기대.

양광전력(300274.CH): 5~10억위안 자사주 매입 계획

- 7/20 양광전력은 5~10억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매입한 주식은 스톡옵션 및 임직원 지분 보유에 활용할 예정.

사원전기(002028.CH): 4억위안 증자, 슈퍼커패시터 생산 확대

- 7/20 사원전기는 자회사 사원신에너지에 최소 4억위안 증자 계획 공시. 증자 자금은 슈퍼커패시터(초고용량 커패시터) 및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될 예정. 슈퍼커패시터는 전력시스템에서 정지형 동기조상기(SSC)와 주파수 조정용 ESS 등에 적용되며 데이터센터에서도 주요 솔루션으로 채택됨. 해당 제품은 현재 양산 적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 회사는 슈퍼커패시터 기반 통합 제품 및 시스템 솔루션의 성장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동방전기(600875.CH): 선진국 시장을 연 G50, 추가 해외 수주 기대

- 현재 동방전기는 중국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 개발 F급 가스터빈의 해외 상업 공급 레퍼런스 확보.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용 설비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지속. 동방전기의 G50 납기 기간은 약 13개월로 글로벌 업체들의 통상적인 납기(약 3년) 대비 크게 짧아 단기 공급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동방전기는 1단계 증설을 통해 2027년까지 G50 20기와 G200 3기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
- 동방전기는 올해 5월 캐나다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50MW급 중형 가스터빈 G50 10기 공급 계약을 체결, 추가 10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 추가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총 계약 규모는 약 40억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5년 신규 수주의 약 3% 수준에 해당. 이번 계약은 중국 독자 개발 F급 가스터빈이 처음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대규모 상업 수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최근 북미 가스터빈 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다소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전 실적 축적과 대형 모델(G200)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ASP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동방전기 주가는 연초 캐나다 AI 데이터센터향 가스터빈 공급 기대감으로 급등했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약 42% 조정을 받음. 이에 따라 A주 기준 12MF P/E는 19배 수준까지 하락해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 향후 캐나다 추가 10기 계약이나 신규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확인될 경우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주가의 핵심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

에너지: 중국, 향후 5년간 풍력·태양광 발전량 53% 확대할 계획

- 7/23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발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25년 11.8억톤에서 2030년 18억톤으로 53% 확대할 계획. 이번 계획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의무 목표로 설정.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은 ESS를 활용해 최대 전력수요 시 설치 용량의 8%를 안정적으로 공급, 전력 피크 시간대 전체 전력수요의 20%를 담당하는 것이 목표. 또한 2030년까지 전력 피크 시 즉시 가동 가능한 재생에너지 피크 대응 설비를 300GW 이상 추가 구축할 계획.

태양광: 중국 태양광 설치량 감소, 2025년 기저효과 영향

- 1H26 중국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72.07GW로 YoY -66% 감소(1H25 212GW). 6월 설치량은 12.5GW로 YoY -13% 기록. 1H26 감소폭이 큰 원인은 25/06/01부터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의 전력 판매가격 체계가 기존 FIT(고정가격)에서 시장가격(market-based pricing)으로 전환됐기 때문.
- 기존 FIT 체계에서는 장기간 고정된 판매가격이 보장됐으나, 시장가격 체계에서는 전력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수익 변동성이 확대.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자들은 FIT 적용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 준공 및 계통연계를 앞당겼고, 원래 2026년에 설치될 일부 물량까지 2025년 상반기에 선반영. 실제로 2025년 5월 월간 설치량은 93GW로 4배 이상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이후 2025년 6월부터 선설치(front-loading) 효과가 소멸되며 설치량이 정상화됐고, 이에 따라 1H26 설치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Reuters는 2026년 연간 설치량이 중국태양광산업협회(CPIA)가 2월 제시한 180~240GW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 전망치를 밑돌 경우 연간 설치량은 2025년 315GW 대비 감소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설치량이 감소할 가능성 존재.
- 태양광 전력의 판매가가 시장가격으로 개편된 것은 중국 정부가 태양광 과잉 공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2025년 개편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신에너지 발전원가가 초기 대비 크게 하락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이미 전체 발전설비의 40%를 넘어서는 등 산업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 또한, 2024년 중국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YoY 4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누적 설치용량도 887GW로 미국의 6배 이상에 달함.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예정보다 6년 앞서 달성. 따라서, 정부는 FIT를 통한 보조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가격 체계로 전환.

태양광: 중국 태양광셀 수출, 환급세 폐지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

- 7/20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6월 태양광 셀·패널 수출은 수출 환급세 폐지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 전체 수출량은 YoY -9% 감소한 98만톤, 수출액은 24.9억달러 기록. 다만 지역별로는 동남아(+33% YoY), 남아시아(+12%), 아프리카(+26%) 수출이 증가하며 신흥국 중심의 수요는 견조. 반면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은 YoY -18%, 중동은 -38%, 중남미는 -20% 감소. 중국은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4/1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수출 환급을 폐지함.

희토류: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미국, 유럽 공급망 차질 우려 제기

- 7/20 보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중국 외 지역의 자동차·첨단기술·방산·에너지 산업에서 약 6.5조USD 규모의 생산이 공급망 차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 미국과 유럽이 전체 경제적 영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중국이 추진 중인 흑연(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중국 외 지역에서 약 3,000억USD 규모의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서방은 대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2025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 규모는 650억달러로 4배 이상 증가. 미국·말레이시아의 신규 희토류 정제시설 가동으로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정제 점유율은 2023년 90%에서 2025년 85%로 하락했고, 계획된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035년에는 70%까지 하락할 전망.

전기차

샤오펑(XPEV.US): 플라잉카 상용화 기대감 상승

- 중국 민항국(CAAC)이 민간 승객용 eVTOL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적합 기업 1차 명단을 공개. 샤오펑 플라잉카 자회사 Aridge를 비롯해 Ehang, Volant, AutoFlight(CATL 투자) 등 4개 업체가 선정. 선정 기업은 인증 절차 간소화, 신청 우선 심사, 단계별 시험 결과 상호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 이를 통해 감항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eVTOL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목적. 선도 업체들이 감항인증을 더 빠르게 획득하면서 상용화를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Aridge는 2025년 10월 Xpeng AeroHT에서 사명을 변경. 누적 약 10억USD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고 홍콩 IPO도 준비 중. Aridge는 현재 모듈형 플라잉카(Land Aircraft Carrier)의 감항인증을 진행 중. 차량과 2인승 eVTOL 항공기로 구성되며, 항공기를 차량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구조. 판매가격은 200만위안 미만으로 제시. 허샤오펑 CEO는 지난 4월 베이징모터쇼에서 사전예약 7,000대를 확보했으며, 2026년 양산 시작 계획이라고 밝힘.

리오토(LI.US): 반도체 법인 설립, 중국 완성차 업체 반도체 내재화 경쟁 본격화

- 7/13 리오토가 상하이에 반도체 설계 법인 신창즈허 설립. 사업 범위는 칩 설계·기술 개발·IC 제품 판매 등으로, 자체 반도체 사업의 독립 운영 가능성이 제기됨. 법인 대표에 자본시장 출신 임원을 선임해 향후 외부 투자 유치 및 분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됨. 지난 5월 리오토는 자체 개발 AI 칩 Mach M100(5nm, 1,280TOPS)을 공개했고, 이는 이미 신형 L9·L8·L6에 탑재해 양산 중. 리오토가 칩 사업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 2025년 칩 자회사 선지를 설립한 니오와 동일한 전략을 따르게 됨. 니오의 선지는 현재 약 30억위안 투자 유치, 기업가치 82.7억위안을 인정 받았으며, WAIC 2026에서 자율주행·체화 AI용 칩을 공개. 샤오펑도 자체 개발 Turing 칩을 차량에 적용 중으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반도체 내재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

니오(NIO.US): 누적 인도량 Onvo L90 6만대, Firefly 7만대 돌파

- 니오의 서브브랜드 Onvo의 L90 대형 전기 SUV 누적 인도량이 6만대 돌파. L90은 4/21 출시 이후 30만위안급 대형 순수전기 SUV 시장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음. 2026년형 L90은 자체 개발 5nm NX9031 칩, World Model 기반 자율주행, LiDAR 옵션 등을 탑재.
- 니오의 소형 전기차 브랜드 Firefly의 누적 인도량이 7만 대를 돌파. 2025년 4월 첫 인도 이후 약 15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 Firefly의 안정적인 판매 확대는 니오가 프리미엄 브랜드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가격대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지리자동차(0175.HK): 포드와 스페인에 JV 설립, EU 현지 생산 요건 강화에 대비

- 7/23 지리자동차와 포드가 스페인 발렌시아 공장에서 전기 SUV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발표. 지분 구조는 포드 66%, 지리 34%. 이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EU의 현지 생산 요건 강화에 대비하는 조치. 지리-포드 JV는 2028년부터 지리 EX5 전기 SUV 생산 시작할 것이며, 유럽 시장용 신규 크로스오버 모델을 공동 개발해 BEV-PHEV-EREV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출시 예정. 이번 JV는 지리자동차의 첫 유럽 생산기지가 됨. 스페인은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이며,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 업체들의 주요 투자 후보지로 꼽힘. 지리 자동차 외에 BYD, 립모터, 홍치도 스페인 공장을 후보지로 검토 중.

전기차: 멕시코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

- 7/20 멕시코의 중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지속. 1H26 중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13.8만대로 YoY +28% 증가했고, 시장점유율은 17%(1H25 14%)까지 확대.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자동차에 50%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 자동차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다만, 이번 판매 증가는 관세 시행 이전 중국 업체들이 차량을 대량 선적해 확보한 재고가 반영된 영향으로 판단. 실제 중국 브랜드 자동차의 멕시코 수입량은 1~5월 기준 YoY -43% 감소.

AI/테크

알리바바(9988.HK): AI 에이전트 전용 서버 인스턴스 출시, 비용 절감 효과 제공

- 7/20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AI 에이전트 전용 경량 서버 인스턴스를 출시.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서버·API Key·공인IP·대역폭을 각각 따로 구매 및 설정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vCPU·메모리·클라우드 디스크·200Mbps 대역폭·LLM 토큰(1억~32억개)을 단일 선불 패키지로 통합 제공하는 일체형 AI 에이전트 운영 환경을 구현. 현재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2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향후 국내외 추가 지역으로 확대 예정.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입문형(2코어 2G+2억 토큰) 기준 AI 코딩 시나리오에서 기존 별도 구매 대비 월 18%, 콘텐츠 생성 등 고사용 시나리오에서는 월 68%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7/15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개한 신규 모바일 생성형 AI 서비스 비안 명단에 애플의 'Apple Intelligence'가 7/8자로 등재됐음이 확인. 2024년 WWDC 첫 공개 이후 2년 만에 중국 시장 진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중국 내 파트너는 알리바바 Qwen·바이두 원신 듀얼 체제로 확정. 알리바바 Qwen이 약 65%·바이두 원신이 약 35%를 각각 담당. 알리바바는 즉각 "사용자가 앱을 전환하지 않아도 iOS·iPadOS·macOS 등에서 Qwen 기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아이폰15 Pro 시리즈 이상 기기에 우선 적용되며 정식 출시 시점은 안전 평가·현지화 적응 완료 후 결정 예정.
- 7/19 WAIC 2026에서 차세대 플래그십 AI 모델 'Qwen3.8-Max-Preview'를 예고하며 강세. 총 파라미터 2.4조 개의 MoE 아키텍처로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모델 중 하나이며 Fable 5에만 뒤쳐진다"고 자평하며 오픈소스화 계획을 공식 발표. 현재 알리바바 TokenPlan, Qoder, QoderWork 플랫폼에서 프리뷰 버전 접근이 가능하며 전체 가중치는 추후 오픈소스로 공개 예정.
- 7/21 EU 집행위원회가 알리바바 산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5억 5,000만유로(약 6억 2,9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며 악재로 작용.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2024년 3월 개시된 28개월간의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위조품·안전 기준 미달 장난감·위험 화장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자사의 불법 상품 탐지·제거 시스템 효율성을 과대 평가하고 콘텐츠 모더레이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핵심 위반 사항으로 지목.

Moonshot AI(비상장): 'Kimi K3',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화두로 부상

- 7/16 신형 모델 'Kimi K3'를 정식 출시하며 글로벌 AI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총 파라미터 2.8조 개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며, 주요 벤치마크에서 GPU 커널 최적화 지표 기준 Fable 5(폴백 포함)와 동급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OpenAI GPT-5.6 Sol·GPT-5.5를 상회. Arena.ai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부문 벤치마크 1위, Vals AI 전체 순위 2위(Fable 5 다음, GPT-5.6 Sol 상회)를 기록. 가격은 백만 토큰당 약 12달러로 중국 모델 특유의 초저가보다는 엔트로픽 중간급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단순 가격 경쟁보다 성능 포지셔닝을 우선한 전략으로 주목. 모델 가중치는 7/27 공개 예정.
- 7/20 Kimi K3 출시 48시간 만에 폭발적인 수요로 GPU 연산력이 한계에 도달하며 신규 구독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 "지난 48시간 동안 수요가 현재 연산력의 한계에 근접했으며 GPU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X를 통해 공식 언급하며 기존 구독자는 영향 없이 유지하되 신규 구독만 일시 중단, 연산력 확충 즉시 단계적으로 재오픈 예정. 향후 구독 플랜은 코딩 전용 플랜 포함 2개 티어로 분리 개편해 사용자 유형별 연산력을 최적화할 방침.
- 7/21 블룸버그에 따르면 Moonshot AI가 홍콩 상장 전 마지막 자금 조달 라운드를 8월 중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목표 밸류에이션은 최대 500억달러. 현재 진행 중인 315억달러 밸류에이션 라운드는 수일 내 클로징 예정이며, 완료 즉시 후속 라운드를 곧바로 개시하는 이례적인 속전속결 자금 조달 구조. Moonshot AI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역외 레드칩 구조 해체를 완료해 중국 내 자금 조달 및 IPO 준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

즈푸AI(2513.HK): 탈엔비디아 실현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완공

- 7/21 블룸버그에 따르면 즈푸AI가 엔비디아 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산 AI 칩만으로 구성된 1G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고 일부 가동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7/21 +36.9% 급등하며 최근 낙폭을 대폭 만회. 동 데이터센터는 75만 가구에 동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중국 헤드라인 AI 기업 중 완전한 '엔비디아 제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 각 클러스터당 1만개 이상의 국산 AI 칩을 탑재한 복수의 대규모 연산 클러스터를 이미 구축·운영 중이며, 해당 인프라는 차세대 GLM 프론티어 모델 학습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예정.

텐센트(0700.HK): Citi, 주가 하락에 대해 매수 기회로 평가

- 최근 실적 우려에 대해 주가가 하락한 점을 두고 Citi는 1) AI 하드웨어로의 자금 로테이션 2) 2Q26 게임 수입 둔화에 대한 시장의 공포 3)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훼손 우려 세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시장의 게임 수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모바일 추적 데이터의 오독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매수 기회로 제시. 이에 7/23 텐센트 주가는 1.0% 반등. Citi는 2Q26 국내 게임 수입을 YoY +8%, QoQ -3.9%로 전망하며, 모바일 앱 마켓 추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와 달리 실제 공시 매출은 전기 이연 수입 반영과 추적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PC 게임 호조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Citi는 매수, 목표가 758홍콩달러를 유지하며 "단기 변동성이 텐센트의 다각화된 글로벌 게임 사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

AI: JP모건, 즈푸AI, 미니맥스 목표 주가 대폭 하향

- JP모건이 즈푸AI(2513.HK), 미니맥스(0100.HK) 두 종목 모두에 대해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각각 3.6%/11.4% 하락. JP모건은 즈푸AI 목표주가를 2,400홍콩달러에서 1,600홍콩달러로, 미니맥스 목표주가를 240홍콩달러에서 160홍콩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 중국 AI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익화 속도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가운데, 즈푸AI는 7/9 랍업 해제, H주 배정 증자(314억홍콩달러) 이후 수급 부담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추가 목표가 하향 충격이 겹치며 낙폭이 확대.

중국 AI 인프라 정책: 디지털 경제 하반기 계획 발표

- 7/21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이 2026년 상반기 디지털경제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발표. 상반기 전시 디지털경제 부가가치 증가율 +7.8%·핵심 산업 +9.8%를 기록했으며 신규 AI 연산력 2.2만P를 추가해 공급 규모가 8.2만P에 도달했다고 발표. 하반기에는 1)'Token 경제 발전 정책'을 제정해 Token 생산·배포·응용 등 핵심 환절에 'Token 공장'·'Token 배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업·교육·문화관광 등 중점 분야 응용을 추진, 2)'슈퍼노드+산업노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하반기 신규 AI 연산력 5만P를 추가해 연내 총 산력 규모 13만P 돌파를 목표로 제시, 3)데이터센터 녹색화 개조를 추진해 연간 녹색전기 소비량 30억 kWh 이상을 달성할 방침. 'Token 공장'은 대형 모델 학습·추론을 위한 고효율 AI 연산력 인프라로 연산력 자원의 풀링·스케줄링 최적화를 통해 Token 생성 효율과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개념으로, 베이징이 중국 최대 AI 기업 집적지라는 점에서 AI 밸류체인 전반의 추가 수요를 직접 견인할 전망. 정책 발표 이후 7/22 클라우드 컴퓨팅/IDC 테마가 강세, 자광주식(000938.SZ), 중과서광(603019.SH), 링차오정보(000977.SZ)는 각각 8.35/4.4%/2.0% 상승 마감.

로보틱스

샤오미(1810.HK):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 생산라인 투입, 성능 대폭 개선

- 7/15 샤오미는 자동차 생산라인에 투입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4개월간의 개선을 거쳐 사람에 근접한 성능을 달성했다고 밝힘. 셀프태핑 너트 장착 공정에서 로봇의 성공률은 98%(3월 90%+)까지 상승했으며, 사람 작업자와의 합격률 격차는 1%p로 축소. 7월부터 샤오미 휴머노이드는 플렉시블 센터 콘솔 측면 커버 분류, 반납용 박스 접기 등 새로운 물류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90%의 성공률을 기록.
- 최근 Figure와 AgiBot 등 경쟁사들도 장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공장 운영 능력과 신뢰성을 입증. Figure는 Figure 02를 활용해 20시간 이상 연속 물류 작업을 시연하며 장시간 자율운영 능력을 입증. AgiBot은 태블릿 생산라인에서 64시간 연속 가동, 6만4,828개 작업 수행, 99%의 작업 성공률을 기록하며 산업용 휴머노이드 신뢰성을 강조.

샤오미(1810.HK): 임바디드 AI 모델 Xiaomi-Robotics-U0 공개

- 7/13 샤오미는 380억(38B) 파라미터 규모의 멀티모달 자기회귀(autoregressive) 기반 임바디드 AI 모델 Xiaomi-Robotics-U0 공개. 하나의 모델에서 임바디드 장면 생성, 임바디드 전이(Embodied Transfer), 로봇 상호작용 영상 생성, 범용 이미지 생성·편집 등 4가지 기능을 통합. 이는 텍스트만으로 로봇 작업 환경 생성, 기존 로봇 동작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 작업 지시 기반 로봇 상호작용 영상 생성 가능.

유비테크(9880.HK): Walker S2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에 도입

- 7/20 보도에 따르면, UBTECH가 덕산 JM Robotics(JMR), 아진산업과 MOU를 체결, 한국 최초로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에 Cruzr Y1-Walker S2 휴머노이드 실증 프로젝트 추진. 2026년 8월부터 아진산업은 스마트공장에서도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로봇의 POC(개념검증)을 시작할 예정. 목표는 휴머노이드를 단순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자동차 제조 공정에 적용하는 것..

Dobot(2432.HK): 창업판 IPO 추진

- 7/15 선전거래소는 도봇의 창업판(ChiNext) IPO를 7/22 상장위원회 심사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발표. 조달 규모는 12억위안이며, 이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홍콩 상장사의 첫 A주 복귀 사례. IPO 신청부터 상장위원회 심사까지 86일이 소요돼 심사 절차가 크게 단축. 도봇은 협동로봇과 체화지능 로봇 기업으로 Atom 휴머노이드, Hexplorer 6족 로봇, Rover X1 4족 로봇, X-Trainer 양팔 로봇 등을 출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양산을 추진하는 선도 기업 중 하나로 평가.

Agibot(비상장): 홍콩 IPO 추진

- 7/22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AgiBot는 홍콩 IPO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 중신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CICC와 모건스탠리도 공동 주관사로 참여. AgiBot은 지난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개편하며 IPO 준비를 진행해 왔음. Unitree에 이어 AgiBot도 홍콩 IPO를 추진하면서 중국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모습.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 400종 이상, 글로벌의 절반 차지

- 7/20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 400종 이상을 개발해 글로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4족 보행 로봇은 글로벌 판매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발표. 저장성의 상반기 로봇 수출이 10억위안을 돌파, 이 중 지능형 바이오닉 로봇 수출은 중국 전체의 약 60%를 차지. 저장성 항저우에는 700개 이상의 로봇 관련 기업이 집적돼 완성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 경쟁은 하드웨어에서 AI와 데이터로

- 7/20 TrendForce 보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산업의 경쟁축이 하드웨어에서 AI와 데이터로 이동. 앞으로는 누가 더 좋은 로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과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는지가 경쟁력을 결정할 전망. 중국은 Ultra-Bionic 휴머노이드 시장을 빠르게 확대. 노동 대체보다 정서적 교감에 초점을 맞춘 반려·실버케어·엔터테인먼트용 로봇이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력도 하드웨어 성능에서 감정 AI와 사용자 경험으로 이동. 이에 따라 공급망도 서보모터·감속기뿐 아니라 전자피부, 실리콘 소재, 멀티모달 센서, 비전모듈, 엣지 AI칩, 감정 AI 모델 등으로 확대될 것.

호라이즌(9660.HK): 폭스바겐 자율주행 자회사 CARIZON과 협력

- 7/22 폭스바겐 자율주행 자회사 CARIZON이 호라이즌과 협력 확대. CARIZON은 Horizon Robotics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Level 3~Level 4 자율주행 기술을 동시에 개발할 계획. 폭스바겐은 2027년 하반기 중국에서 Level 3 탑재 차량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중국 판매 모델에 도심 주행 보조(Level 2) 기능도 순차 적용할 계획. 1H26 잠정매출액은 19~21억위안으로 YoY +24.8~34.5% 증가해 컨센서스 상회, 조정순손실은 -14~-17억위안으로 적자폭 확대.

소비

귀주모태주(600519.SH): 3개월 만에 또 한번의 가격 인상

- 7/17 귀주모태주가 3개월 만에 53도 '비천모태(飞天茅台, 500ml)' 가격을 재인상한다고 공시, 7/18 0시부터 iMoutai 플랫폼 기준 소매가 1,539위안에서 1,639위안/병(+100위안), 판매 계약가 1,269위안에서 1,369위안/병(+100위안)으로 인상. 3월 31일 1차 가격 인상(출고가 +100위안/병·소매가 +40위안/병) 이후 3개월여 만의 2차 인상으로, 이번에는 출고가와 소매가를 동일하게 100위안씩 인상해 채널 마진을 개선을 추진.

안타스포츠(2020.HK): 휠라 매출 증가율 메인 브랜드 상회

- 7/17 2Q26 리테일 판매액 운영 업데이트를 공시하며 브랜드별 성과를 발표. 핵심 안타(ANTA) 브랜드 2Q26 소매 판매액 YoY LSD%(한 자릿수 초반) 증가, 휠라(FILA) 브랜드 YoY MSD%(한 자릿수 중반) 증가로 휠라가 안타 본 브랜드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 중국 소비자 심리 위축, 비계절적 기상 영향에도 618 쇼핑 시즌 집중 수요로 분기 실적을 방어했다고 설명.

샤오미(1810.HK):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상향 조정에도 주가 반등 미미

- 7/21 샤오미는 올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을 1억 1,000만대(YoY +16%)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주가는 1.2% 하락 마감. 스마트폰 사업의 탄탄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부품 원가 부담 확대, EV 사업부의 지속적인 적자가 발목을 잡으며 주가 반등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

탑스포츠(6110.HK): 나이키 온라인 매출 채널 상실, 부정적 영향 확대 예상

- 7/22 나이키로부터 중국 본토 온라인 플랫폼 판매를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종료한다는 공식 통보를 수령했다고 공시. 온라인 나이키 제품 판매가 2026년 2월 말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22%를 차지하는 만큼 단기 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명시. 탑스포츠는 오프라인 판매 협력은 지속할 방침이나, 온라인 채널 매출 22% 상실이라는 수익 구조 타격이 단기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상황. 나이키가 중국 소비자들을 공식 나이키 채널로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방식을 직접 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스포츠 의류 경쟁업체들에 점유율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캠브리콘(688256.CH)	10.0	123.0	36.9	180.7	85.1	192.7	89.9	208.1	(1.5)	2026-08-07
해광정보(688041.CH)	8.8	162.5	17.8	53.6	42.4	75.3	55.9	76.9	(7.0)	2026-08-19
비렌테크(6082.HK)	5.8	-	1.9	127.6	258.1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19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18.1	-	(9.3)	175.6	128.4	적지	흑자	적지	(2.7)	2026-08-19
북방화창(002371.CH)	12.9	68.3	17.6	28.1	28.3	39.5	43.9	40.7	0.9	2026-08-25
AMEC(688012.CH)	12.1	94.1	13.5	34.5	36.0	66.1	42.8	127.6	13.7	2026-08-19
SMIC(0981.HK)	7.7	67.5	4.8	23.2	18.2	53.4	39.0	51.2	0.0	2026-08-07
JCET(600584.CH)	0.3	63.6	7.4	13.1	15.1	48.4	39.6	55.0	6.5	2026-08-20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21.5	73.6	23.0	36.6	47.7	60.5	54.1	62.4	(0.7)	2026-08-31
빅토리아언트(300476.CH)	(0.5)	26.2	29.2	70.8	74.1	108.8	78.9	82.2	(2.0)	2026-08-26
중지쉬창(300308.CH)	8.3	40.9	63.4	161.3	77.4	191.4	83.0	170.5	14.1	2026-08-2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5.4	21.1	31.1	60.4	33.7	71.3	33.0	69.4	0.0	2026-08-11
즈푸AI(2513.HK)	6.1	-	12.7	442.1	192.6	적지	적지	적지	0.1	2026-08-19
알리바바(BABA.US)	1.4	18.3	8.8	9.8	12.0	(10.8)	39.4	109.5	(2.1)	2026-08-28
텐센트(0700.HK)	(4.5)	12.9	19.2	10.0	9.5	6.2	9.8	26.9	0.1	2026-08-12
바이두(BIDU.US)	0.3	14.3	5.2	0.7	7.2	146.8	20.9	12.0	(2.6)	2026-08-20
레노버(0992.HK)	12.5	16.3	29.3	13.6	12.3	30.3	27.2	29.3	1.3	2026-08-13
샤오미(1810.HK)	(0.7)	20.7	10.0	4.5	17.4	(33.3)	34.3	(8.8)	0.0	2026-08-18
유비테크(9880.HK)	(2.6)	-	(4.6)	92.2	51.3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31
BYD(1211.HK)	(1.0)	17.5	14.8	13.6	9.8	22.1	27.7	30.2	0.0	2026-08-14
CATL(300750.CH/3750.HK)	3.4	18.2	25.1	44.4	21.4	32.8	23.8	40.2	(0.4)	2026-07-24
양광전력(300274.CH)	8.2	15.7	26.5	14.5	19.5	8.5	24.8	17.9	(0.3)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2.7	21.8	17.0	32.3	26.8	59.8	38.8	52.1	0.0	2026-08-28
허사이테크(HSAI.US)	(0.8)	25.9	6.5	44.3	39.5	26.3	63.9	30.7	0.0	2026-08-14
중천과기(600522.CH)	(3.4)	15.8	17.4	23.6	15.6	154.2	42.7	147.1	37.8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4.9	30.4	23.5	31.7	29.2	34.0	37.0	33.4	(0.5)	2026-08-14
동방전기(600875.CH)	5.1	19.7	10.0	10.3	8.4	35.6	31.9	26.2	0.8	2026-08-28
평균	5.3	43.0	17.0	64.9	48.8	61.7	42.7	64.8	2.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7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